

소양인(小陽人)에 있어서 고삼(苦參)의 약물작용

최성륜*

소양인은 사상인(四象人)의 한 유형으로서 체형, 성정, 서격, 습관 등으로 구분될 뿐만아니라 약물도 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동무 이제마(東武李濟馬) 선생의 약성가(藥性歌)에는 사상인을 가리어 각기 요약(要藥)의 품목(品目)에 의하여 매개 약물을 다 뜻여 내지는 못하였다.

나는 수년간 임상 실천중에서 소양인에 고삼을 많이 응용하였다.

고삼은 일반적으로 외용에 쓰여 왔는바 레하면 개선(疥癬), 습진(濕疹), 양독발반(陽毒發斑), 소양증에 쓰고 내복약으로는 적게 쓰여왔다.

그러나 우리 조선민족의 사상의학에 의한 소양인에 대한 고삼의 작용은 내복(內服)으로 그 작용이 매우 좋았다.

의학입문(醫學入門)에 제시하기를 고삼기한, 토대열, 평위능제심복결, 축수리저, 파증가, 대풍악창, 충개살(苦參氣寒, 吐大熱, 平胃凌除心腹結, 逐水利疸, 破癥瘕, 大風惡瘡, 蟲疥殺)이라 하겠다.

고삼은 평위기보중(平胃氣補中)에서 양간담기, 안오장, 정지익정, 리규, 제심번(養肝膽氣, 安五臟, 定志益精, 利竅, 除心煩)하는데 지통작용을 한다.

소양인의 생리형태를 볼때 비대신소, 비실신허(脾

大腎小, 脾實腎虛) 즉, 상성하허지상(上盛下虛之象)으로서 주요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허리가 아프며 허리가 무력한 등 병증이 많다. 치료원칙으로서는 청열, 자음, 리노, 거풍(淸熱, 滋陰, 利尿, 祛風)을 위주로 했다.

임상에서 식체비만(食滯痞滿), 심복번열(心腹煩熱), 설사(泄瀉), 조기 간경화, 대변비조(秘燥) 등 병증을 취급하였는바 조기 간경화로 복통이 심한자는 십이미귀신탕(十二味歸腎湯)에 고삼을 가했고 만성설사 7년인자에게 십이미지황탕(十二味地黃湯)에 고삼을 가했으며 심복번열(心腹煩熱)인 환자에게 량격산화탕(涼膈散火湯)에 고삼을 가했고 오랜 대변비조(秘燥)에 지황백호탕(地黃白虎湯)에 고삼을 가했으며 만성위염 식욕부진에는 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에 고삼을 가했고 부종 3년인 환자에게는 목통대안탕(木通大安湯)에 고삼을 가했으며 복통2년인 환자에게는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에 고삼을 가했고 리질 3개월 환자에게는 황련청장탕(黃連淸腸湯)에 고삼을 가했다.

여기에 십여가지 병례 중에 한가지만 든다.

금년 5월 28일 성명 한XX, 남 59세 조선족 제련하공사

본인의 자술 : 윗 배가 뜨뜻하며 불어나고 식욕이

* 민족의학연구소

당기지 않으며 항상 설사나고 아침 저녁으로 복통이 더 심하여 상급병원에서 확진한데 의하면 조기 간경화 2년이나 된다고 하였다. 복통이 심할때마다 맥주를 마시고 진통시켰는데 우리 중의원 사상문진에 병보이러 왔을때도 진통시키기 위하여 술을 마이고 있었다. 몇년래 연변병원 성립병원에 가서 치료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우리 문진에서의 사상인 유형을 보면 키가 작고 낮이 등글며 하관이 뾰고 관골이 빼여졌고 생식을 즐기며 변비가 생기어 상성하허지상(上盛下虛之象)으로서 소양인이었다.

진찰한데 의하면 설질(舌質)이 붉고 백태가 두꺼우며 맥은 침(沈)하고 현(弦)하였고 위완(胃脘)은 장만(脹滿)되었으며 간은 3형지나 컸다. 비장은 이상이 없었고 사지에 부종도 없었다.

진단, 소양인 복통, 간심음허(肝腎陰虛), 치료원천 : 청열자음보신(淸熱滋陰補腎)

처방 : 생숙지황탕가미(生熟地黃湯加味)

생지15.0, 숙지5.0, 석고10.0, 인동등5.0,련교5.0, 현삼5.0, 복분자5.0, 모황련5.0, 구기자5.0, 백복령5.0, 형개5.0, 방풍5.0, 고삼5.0, 황백5.0, 두첩을 다리어 아침저녁으로 식전에 복용, 재첩함.

6월 5일 복통이 경감되었다.

처방; 십이미지황탕가미(十二味地黃湯加味)

숙지15.0, 백복령10.0, 택사10.0, 단피10.0, 지모5.0, 현삼5.0, 구기자10.0, 복분자5.0, 차전자5.0, 형개5.0, 방풍5.0, 고삼5.0, 활석10.0.

여섯첩 복법상동

6월14일 복통이 경감, 식욕항진

처방 : 상방에 청대2.0, 모황련5.0, 유황7.0, 지골피5.0를 가했다.

여섯첩 복법상동

7월 25일 주증이 경감

처방, 복법, 첩수 상동, 치료효과를 공고히 하였다, 현재 이미 금주하고 진통되었으며 건강이 회복되어 공작에 참가하고있다.

이미 수년간 임상에서 소양인에 고삼을 응용하였는바 그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었다. 대부분 환자들은 만성병으로서 병정이 짜른자는 3개월, 긴자는 7년이었고 보편적으로는 2년으로부터 3년인 환자가 많았다. 소양인에 고삼을 응용한 경험을 소개하는 바 그 양을 많이 쓰면 구토가 나기 쉽기에 좋기는 5g를 초과하지 않는것이 좋았다.